

대선 과정 평가와 향후 한국사회 갈등 전망

■ 대통령 선거 과정 평가

- _ 투표 후보 결정 시기, ‘두 달 전후’
- _ 대선 지지 후보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 부정적
- _ 지지 후보 다른 사람 이해 노력 정도, 64%
- _ 지지 후보 다른 사람, 국가 미래 관심없다 49%
- _ 객관적 근거 제시해도 생각 안 바꾼다, 75%
- _ 지지후보 같은 사람과 있을 때 편안, 75%

■ 대통령 선거 관련 대화 상대

- _ 주 대화 상대, ‘배우자’와 ‘자녀/부모’
- _ 20대 남자 대화상대 가장 적어
- _ 4060세대, ‘배우자’와의 대화 비중 특히 높아
- _ 보수층 대화 상대 많고, 중도층 낮아
- _ 대화 상대, 대부분 평소 입장 같은 사람들

■ 갈등 정도 평가와 향후 전망

- _ 우리사회 갈등 심각하고, 향후 전망 부정적
- _ 2030 남자는 ‘남녀갈등’, 여자는 ‘빈부갈등’ 우려
- _ 4060세대 ‘빈부갈등’ 우려 / 60대, 향후 전망 긍정적
- _ 갈등 전망, 보수층은 긍정적이고 진보층은 부정적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2년 3월 11일(금) ~ 3월 13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26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6\%$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2년 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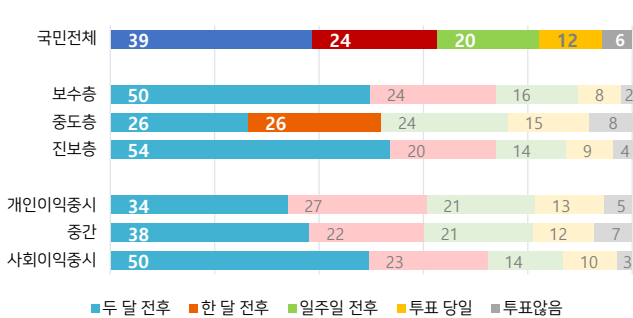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대통령 선거 과정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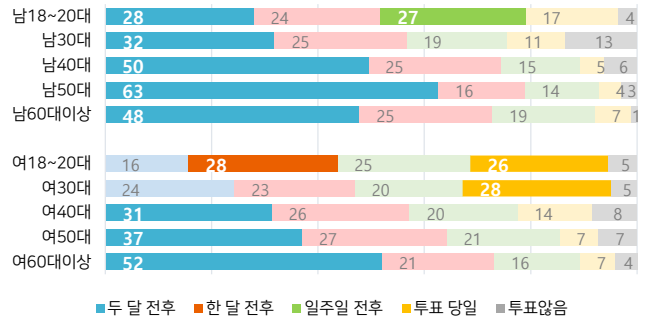
□ 투표 후보 결정 시기, '두 달 전후'

- 대선에서 투표할 후보를 대략 언제쯤 결정했는지 질문한 결과 '두 달 전후'가 3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한 달 전후'(24%), '일주일 전후'(20%), '투표 당일'(12%) 순으로 조사됨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이 '두 달 전후'에 결정했다고 응답했고, 특히 응답 비중이 높은 계층은 △보수층, 진보층 △사회이외 중시층 △남자 4060세대 △여자 60대이상 △자영업자 등임
- 이에 비해 '투표 당일'이라는 응답 비중이 높은 계층은 △여자 2030세대로 각각 26%, 28%를 기록함
- 여자 18~20대의 경우 '한 달 전후'에 결정했다고 응답한 비중도 28%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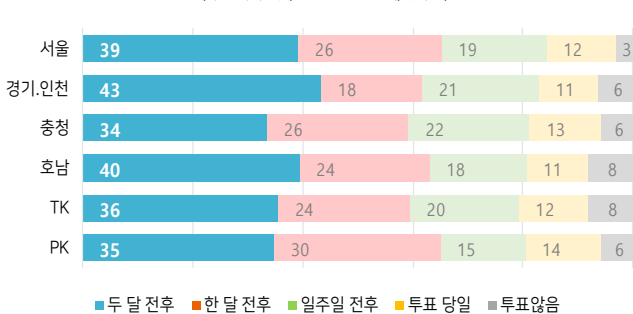
투표 후보 결정 시기 : 국민전체, 이념별, 이억중시별
(자료:케이스탯, 2022.03.13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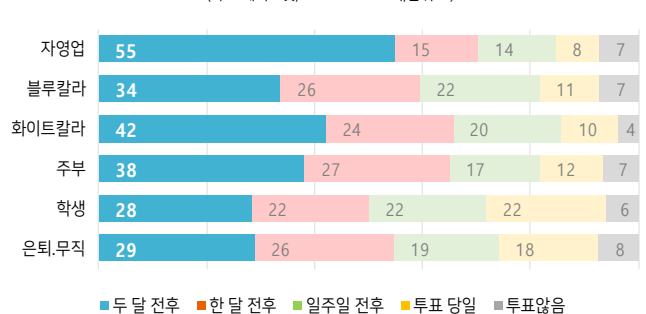
투표 후보 결정 시기 : 성/연령별 (2022.03.13조사, 단위:%)



투표 후보 결정 시기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 2022.03.13조사, 단위:%)



투표 후보 결정 시기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 2022.03.13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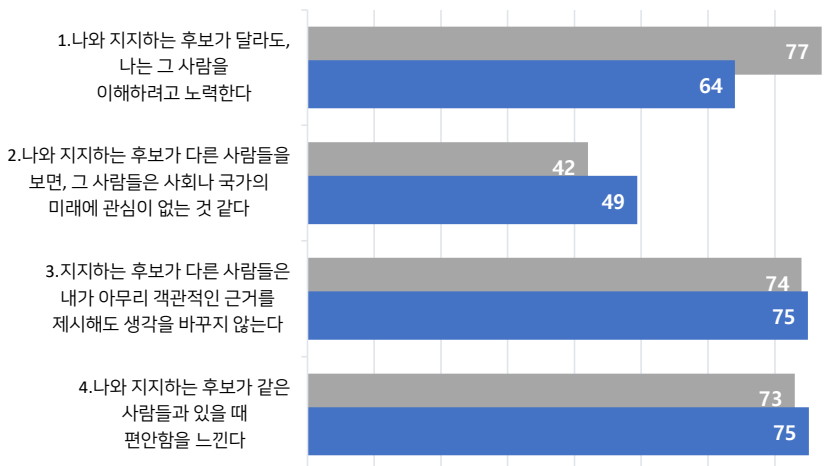
Kstat Point

- ☑ 이번 대선은 어느 대선보다 치열한 진영대결 양상으로 치러지면서 투표 후보 결정 시기 역시 빠르게 이뤄짐
: 보수층은 50%, 진보층은 54%가 '두 달 전후'에 결정한 것에서 보듯 진영 간 대결구도가 조기에 확정되었음
- ☑ 주목되는 점은 남자 30대와 여자 2030세대의 투표결정 시기임
: 당초 역대급 비호감 대선에서 부동산에 머물러 있는 남자 30대와 여자 2030세대의 표심이 선거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들의 투표참여 여부가 마지막 남은 '변수'였음
: 이들이 투표에 참여할 경우 진보적 성향인 점을 감안할 때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고 이재명 후보의 박빙 승리가 가능하지만, 투표하지 않을 경우 윤석열 후보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되었음
: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부동산에 머물러 있던 여자 2030세대 중 상당수가 투표에 참여했으며(투표 당일 결정 비중이 각각 26%, 28%임), 남자 30대는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투표 없음, 13%)
: 방송사 출구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0.7%p'라는 근소한 격차는 여자 2030세대의 투표 참여가 만들어낸 결과임

□ 대선 지지 후보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 부정적

- 이번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생각과 태도를 취하는지 질문한 결과 대체로 부정적 의견이 우세함
 - “다음은 이번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보여진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한 문장입니다. 평소 선생님을 돌아볼 때, 각각의 문장에 동의하세요? 동의하지 않으세요?”라는 질문을 던지고 각각에 대한 동의 여부를 응답 받음
- 먼저 지지하는 후보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긍정적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나와 지지하는 후보가 달라도,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문장에 대해 국민 64%가 ‘동의한다고 응답함
 - 2021년 3월에는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 노력을 질문했으며 77%의 동의도를 기록함
- 하지만 정작 지지하는 후보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 국가 미래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의견이 49%로 절반에 육박함
 - “나와 지지하는 후보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사회나 국가의 미래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문장에 ‘동의한다’ 49%, ‘동의하지 않는다’ 51%로 조사됨

‘대선 지지 후보 다른 사람 대하는 태도’ 관련 표현 동의도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1년3월,2022년3월조사,단위:%)



- 2021년 3월의 설문은 다음과 같음
- 1. “나와 정치적 입장이 달라도,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 2. “나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사회나 국가의 미래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 3.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도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 4. 나와 정치적 입장이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

- 또한 지지하는 후보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좀처럼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 “지지하는 후보가 다른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도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에 대해 75%의 국민이 ‘동의한다고 응답함
- 마지막으로 지지하는 후보가 같은 사람들과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있음
 - “나와 지지하는 후보가 같은 사람들과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에 대해 75%가 ‘동의한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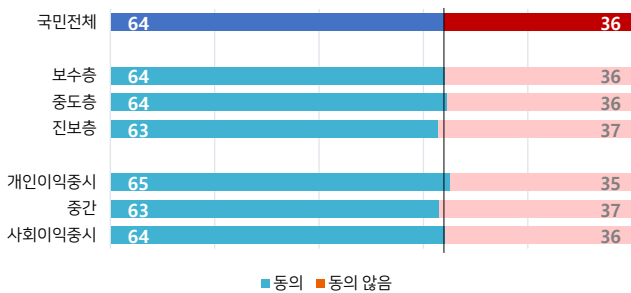
Kstat Point

- ☑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와 대선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거의 유사함 : 통상 정치적 입장이 다르면 대통령선거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됨
- ☑ 전반적으로 부정적 태도라는 점은 유사하지만, 대통령선거에서 부정적 태도가 더 강화되는 모습임 : 선거는 승패가 뚜렷하게 갈리기에, 일상 시기에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보다 예민해지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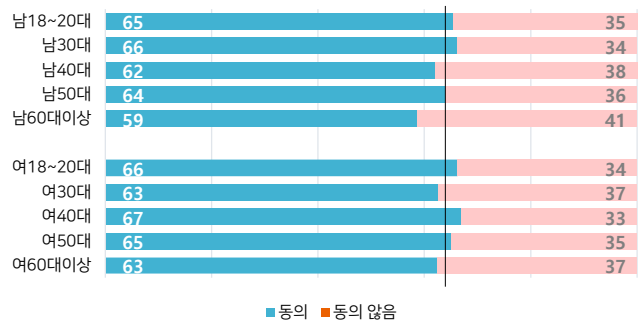
□ 지지 후보 다른 사람 이해 노력 정도, 64%

- 국민 다수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지지후보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함
 - “나와 지지하는 후보가 달라도,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문장에 ‘동의한다’ 64%, ‘동의하지 않는다’ 36%로 나타남
- 모든 계층에 걸쳐 ‘동의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30대 △여자 18~20대, 여자 40대 △서울, 충청 △화이트칼라 종사자 등임
-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 60대이상 △호남 △자영업, 블루칼라, 학생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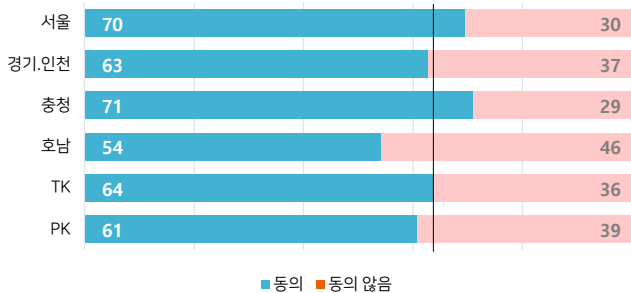
"나와 지지후보 달라도 이해하려 노력" 동의 여부 : 국민전체, 이념별, 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 2022.03.13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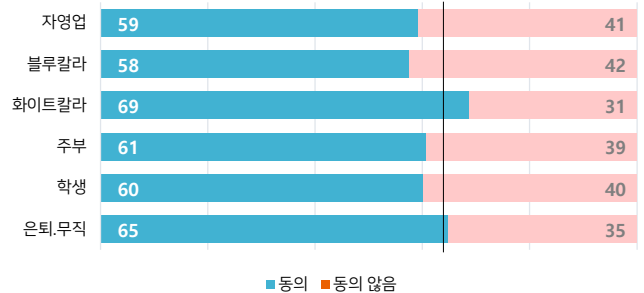
"나와 지지후보 달라도 이해하려 노력" 동의 : 성/연령별 (단위:%)



"나와 지지후보 달라도 이해하려 노력" 동의 여부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 2022.03.13조사, 단위:%)



"나와 지지후보 달라도 이해하려 노력" 동의 여부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 2022.03.13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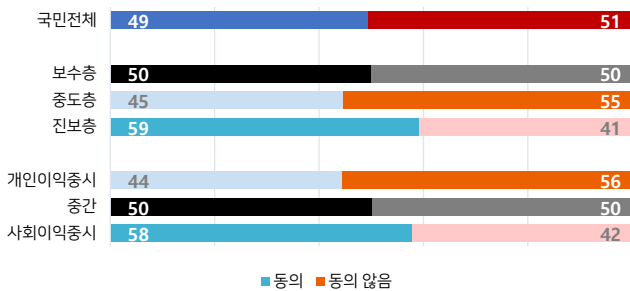
Kstat Point

- ☑ 국민 다수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응답함(64%)
 - : 지지 후보에 대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나타냄
- ☑ 그러나 ‘정치적 입장 차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 정도와 비교하면 수치가 하락함
 - : ‘정치적 입장이 달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2021년 조사 설문)에 대한 동의도는 77%를 기록함
- ☑ 이러한 차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거시기라는 특수성 때문으로 분석됨
 - : 선거는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갈리기에 지지 후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대립적 태도가 강화되는 것으로 보임
 - : 특히 이번 대통령선거와 같이 ‘보수 vs 진보’라는 진영대결이 뚜렷한 선거에서, 이러한 대립적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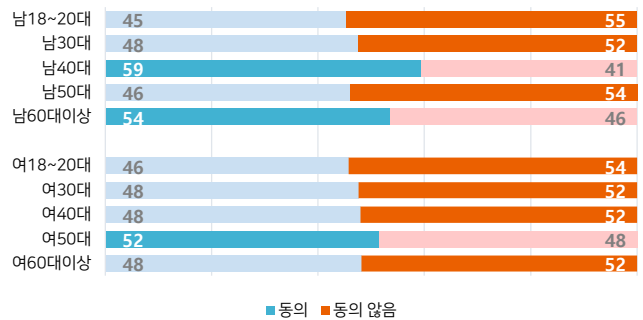
□ 지지 후보 다른 사람, 국가 미래 관심없다 49%

- 우리 국민들은 지지하는 후보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정작 그 사람들을 볼 때 사회나 국가의 미래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음
 - “나와 지지하는 후보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사회나 국가의 미래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문장에 ‘동의한다’ 49%, ‘동의하지 않는다’ 51%로 팽팽함
- 거의 모든 계층에서 ‘동의한다’는 의견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임
 - 계층별로는 △보수층 △사회이익 중시 중간층 △경기.인천, PK △화이트칼라 등임
- ‘동의한다’는 의견(부정적 태도)이 우세한 계층은 △진보층 △사회이익 중시층 △남자 40대 △남자 60대 이상 △여자 50대 △호남, TK △자영업, 블루칼라 등임
-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긍정적 태도)이 우세한 계층은 △중도층 △개인이익 중시층 △남자 2030세대 △남자 50대 △여자 2040세대 △여자 60대 이상 △서울, 충청 △주부, 학생, 은퇴.무직자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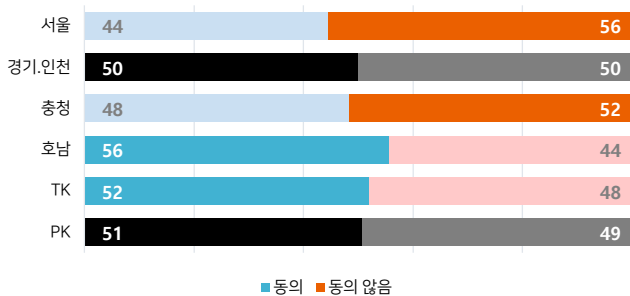
"지지후보 다른사람,국가미래 관심 없는듯" 동의 여부 : 국민전체,이념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2.03.13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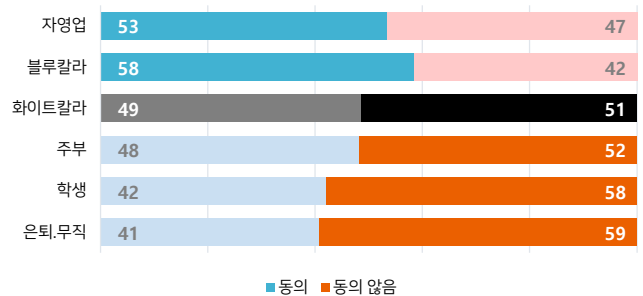
"지지후보 다른사람,국가미래 관심 없는듯" 동의 : 성/연령별 (%)



"지지후보 다른사람,국가미래 관심 없는듯" 동의 여부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2.03.13조사,단위:%)



"지지후보 다른사람,국가미래 관심 없는듯" 동의 여부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2.03.13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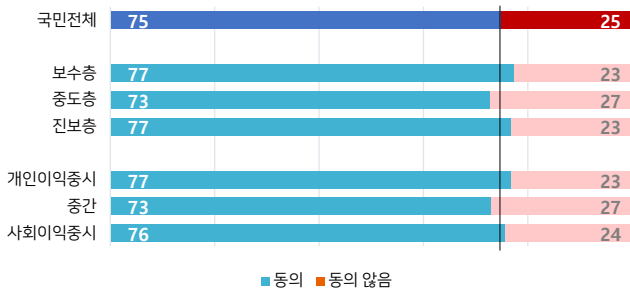
Kstat Point

- ☑ 지지하는 후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 노력한다(64%)면서도, 정작 그들을 볼 때 ‘사회나 국가의 미래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부정적 생각을 하는 국민이 적지 않음
 - : 연령별로는 남자 40대와 남자 60대 이상, 지역적으로는 호남과 TK에서 이러한 의견이 우세해 특히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연령과 지역에서 상대 후보 지지자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또한 일상시기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보다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는 흐름이 재현됨
 - :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은 사회나 국가 미래에 관심 없는것 같다’ 표현에 대한 동의도(2021년 조사)는 42%로 이번 조사에 비해 긍정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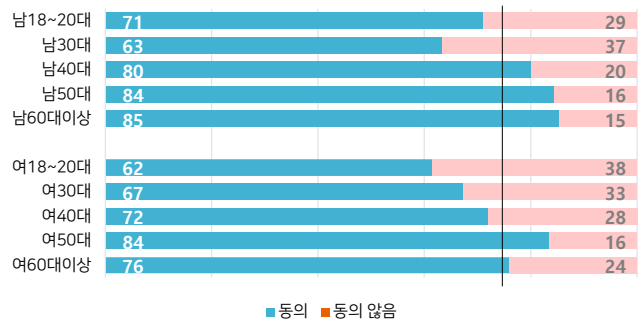
□ 객관적 근거 제시해도 생각 안 바꾼다, 75%

- 우리 국민 대다수는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하지 않음
 - “지지하는 후보가 다른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도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는 문장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75%로 조사됨
- 모든 계층에서 ‘동의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4060세대 △여자 50대 △자영업자 등임
-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 30대 △여자 2030세대 △충청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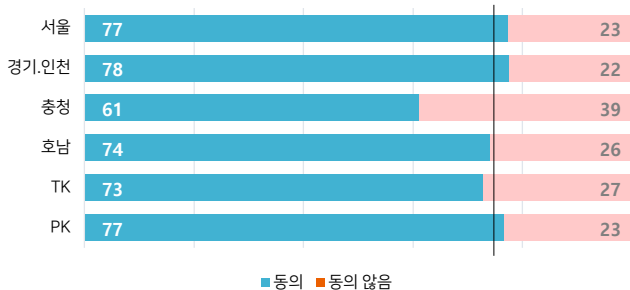
"다른사람,객관적 근거 제시해도 생각 안바뀐" 동의 여부 : 국민전체,이념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2.03.13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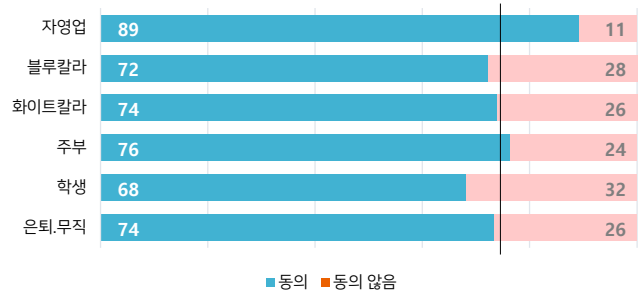
"다른사람,객관적 근거 제시해도 생각 안바뀐":성/연령별 (%)



"다른사람,객관적 근거 제시해도 생각 안바뀐" 동의 여부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2.03.13조사,단위:%)



"다른사람,객관적 근거 제시해도 생각 안바뀐" 동의 여부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2.03.13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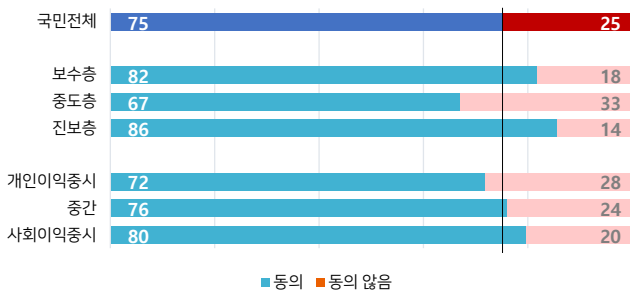
Kstat Point

- ☑ 지지후보가 다른 사람들, 즉 상대후보 지지자를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은 ‘결코 안 바뀔 사람들’로 읽힘
- ☑ 이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변화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자, 스스로의 변화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임
 - : 국민들의 이러한 태도에 비춰볼 때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많은 정책공약들이 발표되었지만, 정책공약이 후보를 선택 하는데 미친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임
 - : 이른바 ‘진영대결’ 구도에서는 후보 선택의 객관적 근거보다, 후보가 어느 진영 사람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임
- ☑ 또한 정치적·이념적 갈등이 심각한 지금의 우리사회가 앞으로도 지속될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임
 - : 2021년 3월 조사결과(“정치적 입장 다른 사람들은 객관적 근거 제시해도 생각 바꾸지 않을 것”, 동의도 74%)와 이번 조사결과가 비슷함
 - : 그만큼 상대 진영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고한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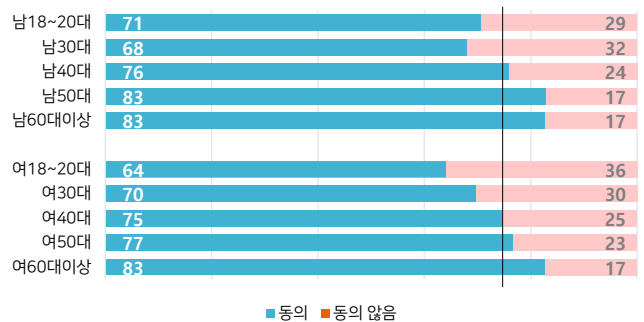
□ 지지후보 같은 사람과 있을 때 편안, 75%

-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자연스럽게 지지후보가 같은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연대 의식을 강화시키는 모습임
- 국민 중 75%는 “나와 지지하는 후보가 같은 사람들과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는 문장에 ‘동의한다’고 응답함
- 모든 계층에서 ‘동의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특히 높은 계층은 △보수층, 진보층 △남자 5060세대 △여자 60대이상 등임
-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중도층 △남자 30대 △여자 2030세대 △은퇴, 무직자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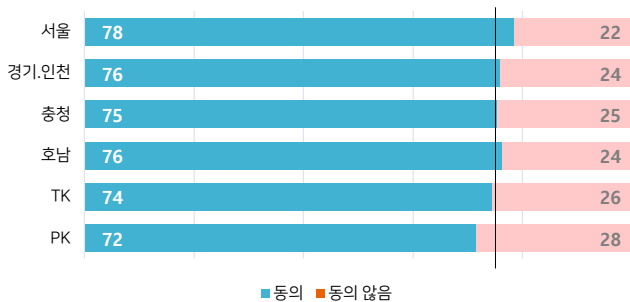
"지지후보 같은 사람과 있을 때 편안" 동의 여부 : 국민전체, 이념별, 이력중시별 (자료:케이스탯, 2022.03.13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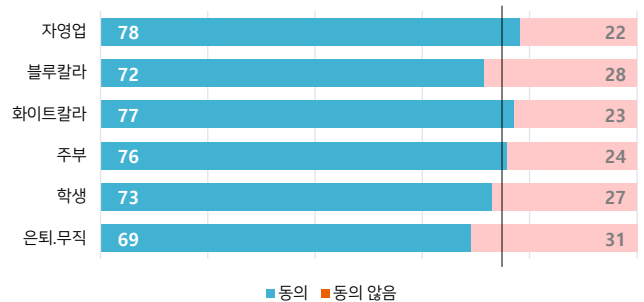
"지지후보 같은 사람과 있을 때 편안" 동의 : 성/연령별 (단위:%)



"지지후보 같은 사람과 있을 때 편안" 동의 여부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 2022.03.13조사, 단위:%)



"지지후보 같은 사람과 있을 때 편안" 동의 여부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 2022.03.13조사, 단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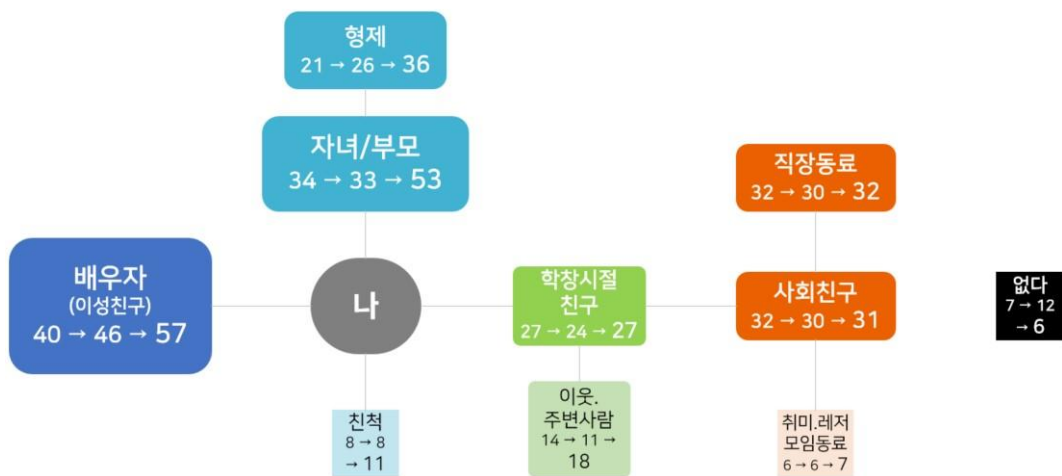
- ☑ 앞서 ‘객관적 근거 제시해도 생각 안 바꿀 것’이라는 응답과 ‘지지후보 같은 사람과 있을 때 편안하다’는 응답이 거의 유사함
 - ： 계층별로도 보수층과 진보층, 남자 50대와 남자 60대 응답 비중이 똑같이 높음
 - ：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이들 계층이 가장 대립했던 것으로 분석됨
- ☑ 또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같은 양상을 보이는데 중도층과 남자 30대, 여자 2030세대에서 응답 비중이 높음
 - ： 이들은 대선 마지막까지 투표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많은 계층이었음
- ☑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번 대통령선거는 극심한 진영 대결 속에 치러졌으며, 상대 후보 지지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했던 선거 과정으로 평가 가능함

▶ 대통령 선거 관련 대화 상대

□ 주 대화 상대, '배우자'와 '자녀/부모'

-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선거 관련 대화는 주로 '배우자(이성친구)'와 '자녀/부모'였던 것으로 조사됨
 - "선생님께서 이번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대화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최근 한 달 사이에 그런 대화를 나눈 상대를 모두 골라주세요. 직접 만나서 하는 대화는 물론 문자, 카카오톡 등 온라인 대화까지 포함해서 골라주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 '배우자(이성친구)'가 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녀/부모'가 53%로 뒤를 이음
 - 앞의 두 숫자는 2020년 2월과 2021년 3월 조사결과 수치이고, 마지막 뒤 숫자가 이번 조사결과임
 - 앞서 두 번의 조사는 '평소 정치나 사회 이슈에 대해 대화하는 사람'을 질문한 것임
- 다음은 '형제'(36%), '직장동료'(32%), '사회친구'(31%), '학창시절 친구'(27%) 등이 뒤를 이음
 - 그 다음으로는 '이웃, 주변사람'(18%), '친척'(11%), '취미.레저모임 동료'(7%) 순으로 조사됨
- 한편, '없다'는 응답은 6%로 나타남

최근 한 달 사이 대선 관련 대화 상대 (복수선택/온라인대화 포함)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 2020년2월, 2021년3월, 2022년3월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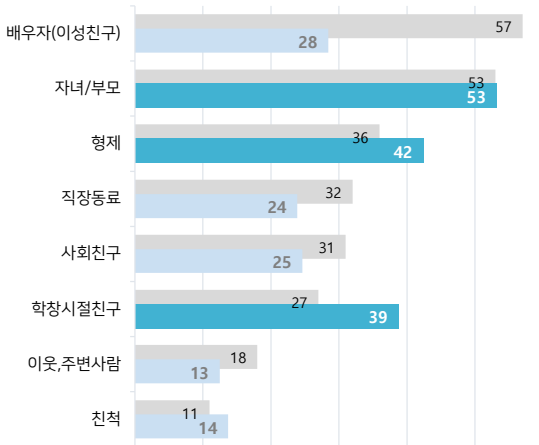
Kstat Point

- ☑ 우리 국민들의 대선 관련 대화 상대는 주로 '가족'에 집중되어 있음
 - :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이성친구), 자녀/부모, 형제 등과는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임
 - : 이러한 경향은 이전에 조사한 정치·사회 이슈 관련 대화 상대에서도 동일함
- ☑ '가족'을 떠나 '사회관계'로 확장하면 대화 상대가 줄어듦
 - : 직장동료 32%, 사회친구 31%로 사회속에서 맺어진 관계에서 대선관련 이슈(이전 조사의 정치·사회 이슈)에 대해 대화하는 것에 부담을 갖는 것으로 보임
- ☑ 2020년, 2021년, 2022년 연속 이러한 흐름이 뚜렷해,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대화를 하는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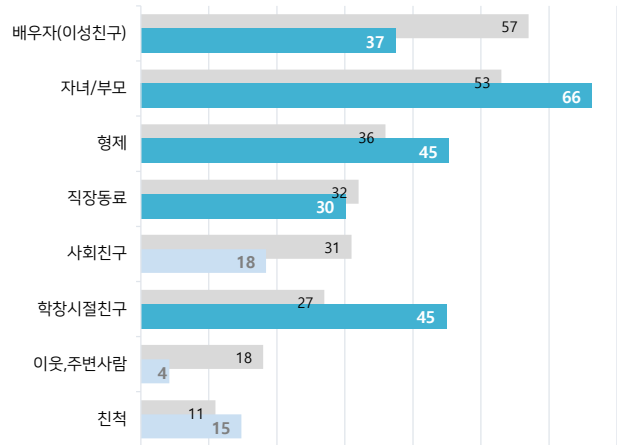
□ 20대 남자 대화상대 가장 적어

- 성/연령대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20대 남자의 대화상대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대화상대 중 30% 이상을 기록한 상대는 ‘부모’(53%), ‘형제’(42%), ‘학창시절 친구’(39%)에 그침
 - 아래 그림에서 회색빛 막대는 국민전체 수치임
- 이에 비해 30대 남자의 대화상대가 가장 많음
 - 30% 이상의 대화상대로 ‘부모’가 56%로 가장 높은 가운데, ‘형제’(39%), ‘직장동료’(37%), ‘배우자(이성친구)’(36%), ‘사회친구’(31%), ‘학창시절 친구’(31%) 등으로 조사됨
- 20대 여자와 30대 여자는 그 중간 정도의 대화상대를 보임
 - 여자 20대는 ‘부모’가 66%로 가장 많았으며, 여자 30대는 ‘배우자(이성친구)’가 58%로 가장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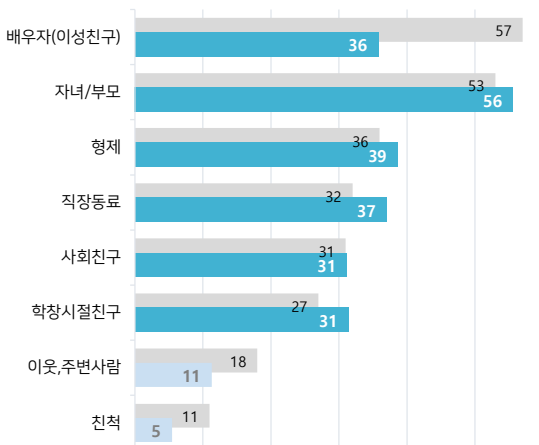
최근 한 달, 대선 관련 대화 상대(복수응답) : 20대남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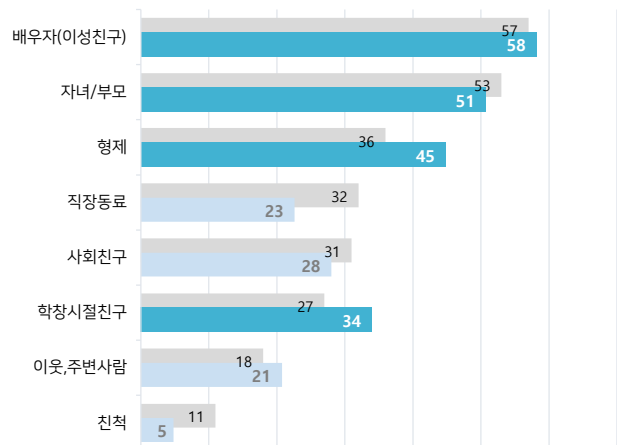
최근 한 달, 대선 관련 대화 상대(복수응답) : 20대여 (단위:%)



최근 한 달, 대선 관련 대화 상대(복수응답) : 30대남 (단위:%)



최근 한 달, 대선 관련 대화 상대(복수응답) : 30대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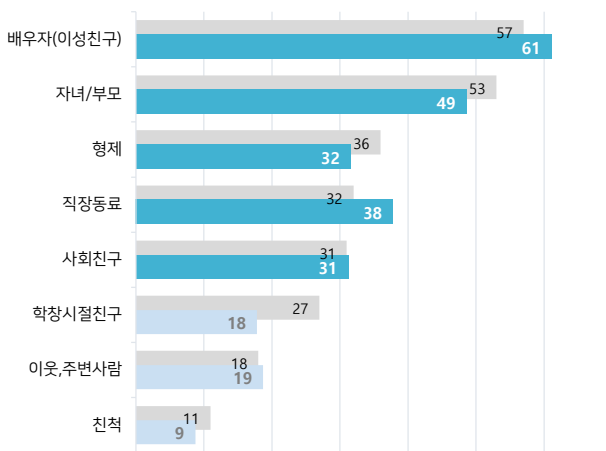
Kstat Point

- ☑ 대선 과정에서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와 연관 지어 살펴보면 지지후보를 일찍 결정한 20대 남성은 대화 상대 비중이 낮고, 늦게 결정한 30대 남성과 2030 여성은 대화 상대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임
 - : 지지후보를 쉽사리 결정 못 하고 고민하는 과정에 여러 상대와 많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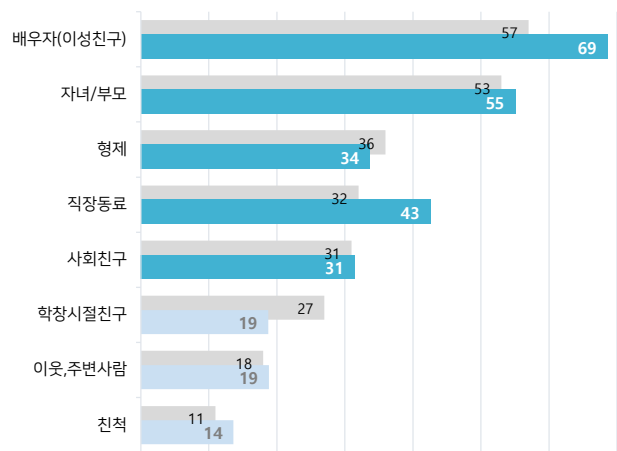
□ 4060세대, '배우자'와의 대화 비중 특히 높아

- 4060세대는 대화상대와의 비중 면에서 모두 왕성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배우자와의 대화 비중이 매우 높음
 - 40대는 61%, 50대는 69%, 60대 이상은 72%로 국민전체에 비해 높음
 - 아래 그림에서 회색빛 막대는 국민전체 수치임
- 4060세대 모두 다음으로 높은 대화상대는 '자녀/부모'인 것으로 조사됨
 - 40대 49%, 50대 55%, 60대 이상 50%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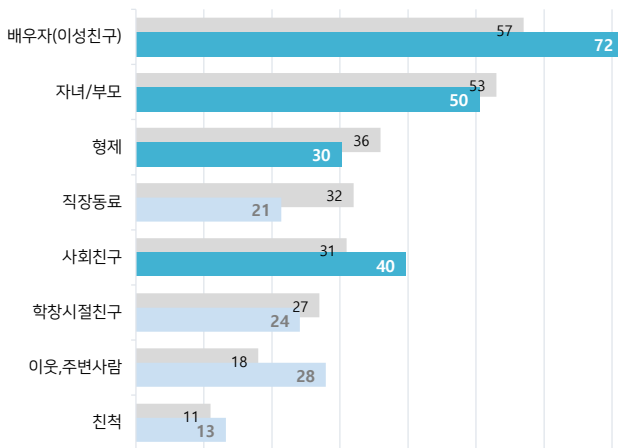
최근 한 달, 대선 관련 대화 상대(복수응답) : 40대 (단위:%)



최근 한 달, 대선 관련 대화 상대(복수응답) : 50대 (단위:%)



최근 한 달, 대선 관련 대화 상대(복수응답) : 60대 이상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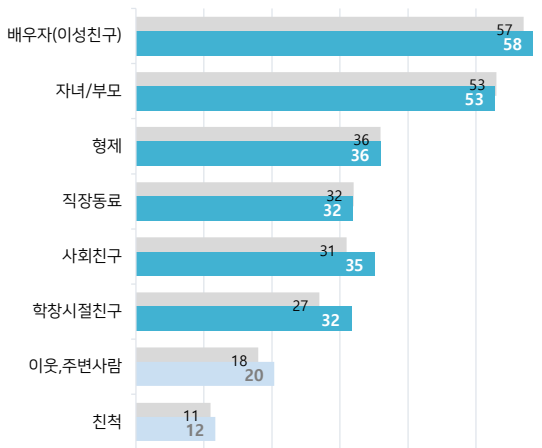
Kstat Point

- ☑ 우리 국민들은 주로 가족들과 대통령선거 이야기를 나눌 뿐, 사회적 관계에서는 대화에 신중한 모습임
- ☑ 다만, 50대와 60대 이상은 사회적 관계에서도 대선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것으로 나타남
 - : 50대는 '직장동료'(43%), 60대 이상은 '사회친구'(40%)가 그 대상임
 - : 50대는 이재명 후보 지지세가 강하고 60대 이상은 윤석열 후보 지지세가 강했는데, 이들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도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이 특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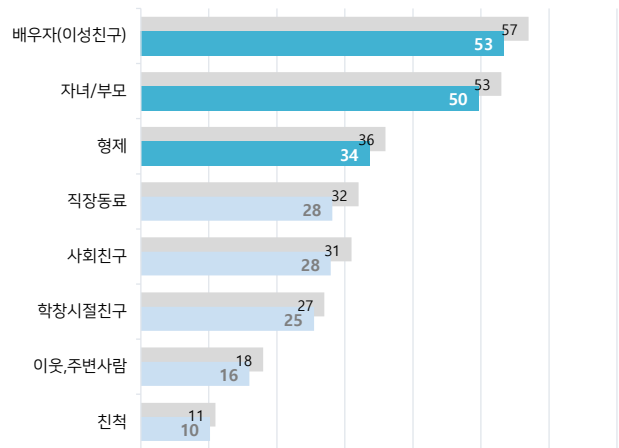
□ 보수층 대화 상대 많고, 중도층 낮아

- 이념별로 살펴보면 보수층이 가장 활발하게 대화를 한 것으로 나타남
 - 보수층은 30% 이상의 대화 상대가 모두 6개로 가장 많음
 - 아래 그림에서 회색빛 막대는 국민전체 수치임
- 이에 비해 중도층은 30% 이상의 대화 상대가 3개에 그치며, 진보층은 5개를 기록함
 - 중도층은 대화 상대 비중면에서도 국민전체 보다 낮은 수치를 보임
 - 진보층은 대화 상대는 5개지만 비중면에서 국민전체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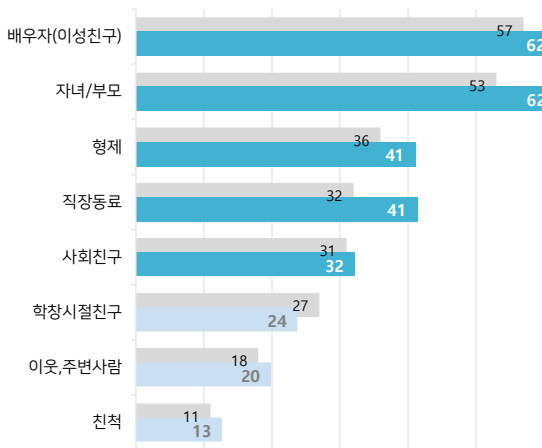
최근 한 달, 대선 관련 대화 상대(복수응답) : 보수층 (단위:%)



최근 한 달, 대선 관련 대화 상대(복수응답) : 중도층 (단위:%)



최근 한 달, 대선 관련 대화 상대(복수응답) : 진보층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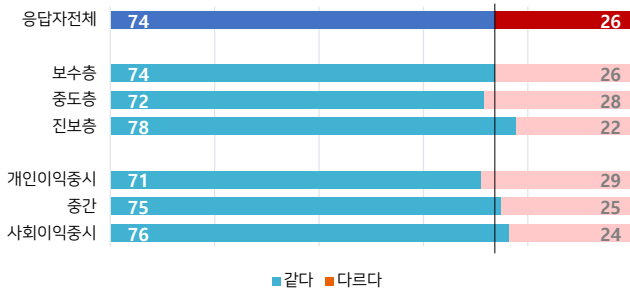
Kstat Point

- ☑ 보수층은 다양한 대화 상대와 폭넓게 대화를 나눈데 비해, 진보층은 가족과 직장동료 중심으로 집중적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나타남
 - :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보수층이 다양한 계층과 대화를 나눈 것이 대선 승리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 한편, 중도층은 대선과 관련된 대화 상대와 비중이 매우 낮음
 - : 중도층을 두고 보수와 진보의 중간에서 중도적 입장을 견지하는 '실체가 있는 계층'으로 말하는데,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대선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부동층'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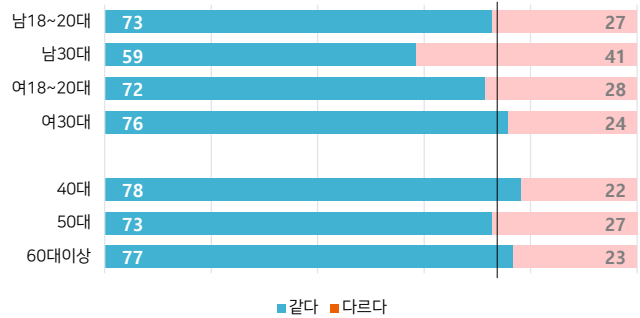
□ 대화 상대, 대부분 평소 입장 같은 사람들

-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대화를 했다’고 응답한 사람들만 한정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 중 74%는 평소 입장이 같은 사람들과 대화를 한 것으로 조사됨
 - “대화를 나눈 사람과 선생님의 입장은 평소 같은가요, 다른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 대화를 한 응답자는 모두 960명임
- 모든 계층에서 평소 입장이 ‘같다’는 응답이 우세하고, 특히 높은 계층은 △진보층 △40대, 60대이상 △충청, 호남, TK 등임
- ‘다르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 30대 △PK △학생, 은퇴.무직자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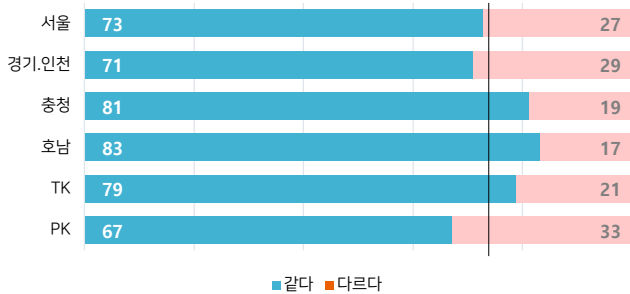
(대화한 응답자만) 대화 상대, 평소 입장 : 응답자전체,이념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2.03.13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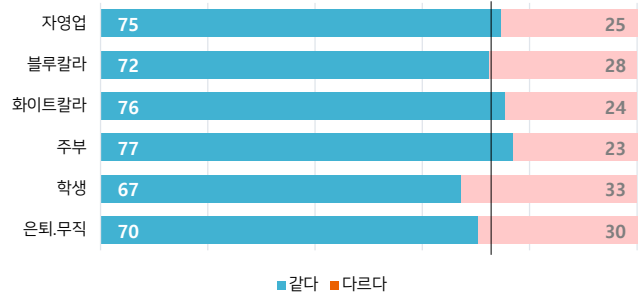
(대화한 응답자만) 대화 상대, 평소 입장 : 성/연령별 (단위:%)



(대화한 응답자만) 대화 상대, 평소 입장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2.03.13조사,단위:%)



(대화한 응답자만) 대화 상대, 평소 입장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2.03.13조사,단위:%)



Kstat Point

- ☑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대화 상대와 비중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그마저도 평소 입장이 같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것으로 나타남
 - : 이는 앞서 언급한 ‘지지후보가 다른 사람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도 생각 안 바꿀 것’(75%)이라는 판단과 ‘지지후보 같은 사람들과 있을 때 편안하다’(75%)는 인식에 따른 결과로 분석됨
- ☑ 정치적·이념적 갈등이 심각한 우리사회 현실을 돌아볼 때 입장이 다른 사람들끼리 더 많은 대화를 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함
 - : 대통령선거 이후 국가적 과제로 급부상한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간의 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 정치적 입장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할 때만이 실질적인 국민통합이 가능할 것임

- ☑ 이번 대통령선거는 0.7%p 라는 초박빙 차이로 승패가 나뉘면서 '국민통합'이 지상과제로 부각됨
- ☑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케이스탯 리포트 23호에서 소개한 '정치적 대화' 관련 사례를 재인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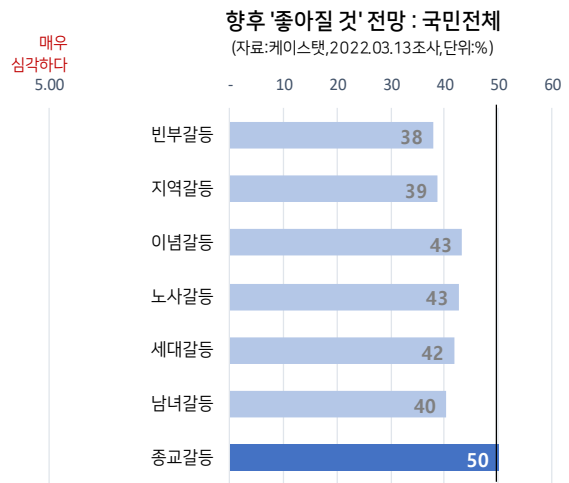


- ☑ 정치적 갈등과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과의 대화 단절, 역으로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면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임
: 이러한 과정에서 소셜미디어가 이른바 '확증 편향'을 강화시키면서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비판적 지적임
- ☑ 2019년 봄, 유럽에서 열린 '유럽 토크'는 정치적 갈등과 사회분열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많은 시사점을 안겨줌
: 유럽 역시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가족들이 분열하고 친구들이 더 이상 교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함
: '유럽 토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며, 33개국 1만 7천명이 넘는 유럽인들이 참여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
- ☑ '유럽 토크'의 핵심은 그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낯선 사람을 1:1로 직접 만나 정치적 논쟁을 벌인다는 점임
: 참가자는 사전 온라인 조사를 통해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함
: 주최측은 온라인 조사결과 가장 대립되는 응답을 표시한 2인을 선정해 1:1 대화를 제안하고, 참가자가 수락하면 대화를 진행하는 방식임
: 통상 1:1 정치적 논쟁은 시간제한을 두지 않으며, 이에 따라 수시간에서 하루 종일 이어짐
- ☑ 면대 면 1:1 정치적 논쟁을 펼친 이후 참가자들 중 67%는 '대화 상대의 태도에서 무엇인가를 배웠다'고 응답했으며, 60%는 서로의 관점이 수렴되었고, 90%는 대화를 즐겼다고 응답함
: 현재 이러한 방식의 1:1 면대 면 정치적 논쟁은 분열된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각광을 받고 있음
- ☑ 유럽 토크를 기획하고 진행한 요헨 비그너(Jochen Wegner 독일의 온라인 뉴스 편집장)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직접 만나 정치적 논쟁을 벌이면 사람들이 놀랍게 변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함
: 그 역시 처음에는 낯선 사람과의 정치적 논쟁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고 걱정했지만, 사람들은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오랜 시간 동안 토론을 하면서 상대방로부터 무엇인가 배우고 이해심이 생긴다고 평가함
: 가장 놀라운 점은 다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점이라고 함
: 유럽 토크는 2017년 6월 독일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이후 유럽 각국으로 확산된 이후 유럽 전역을 관할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함
- ☑ 한국 사회도 지금의 심각한 사회갈등과 대화 단절을 극복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유럽 토크'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언제인가부터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정치와 종교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는 경구를 버리고, 대신 '누군가 만나 논쟁을 하고 즐겁시다.'는 유럽 토크의 모토를 전향적으로 바라봐야 할 때임

갈등 정도 평가와 향후 전망

□ 우리사회 갈등 심각하고, 향후 전망 부정적

- 국민들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갈등에 대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선생님께서서는 다음 각각의 우리사회 갈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질문 후 1점(전혀 심각하지 않다)에서 5점(매우 심각하다) 중 점수를 매긴 결과임
- ‘빈부갈등’이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꼽혔고(4.00점), 다음으로 ‘지역갈등’(3.92점), ‘이념갈등’(3.87점), ‘노사갈등’(3.80점) 순으로 조사됨
 - 그 다음으로는 ‘세대갈등’(3.74점), ‘남녀갈등’(3.73점), ‘종교갈등’(3.21점) 순임
- 각 사회문제에 대해 향후 전망을 질문한 결과 ‘종교갈등’ 외에는 모두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50%에 미치지 못함
 -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세요?”라는 질문 후 ‘나빠질 것’과 ‘좋아질 것’을 선택토록 한 결과임
- 향후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 전망이 가장 낮은 영역은 ‘빈부갈등’(38%)이고, 다음은 ‘지역갈등’(39%)으로 나타남
 - 아래 좌측그림의 검은색 세로 선은 ‘중간’에 해당하는 3점 기준선이고, 우측그림의 검은색 세로 선은 50% 기준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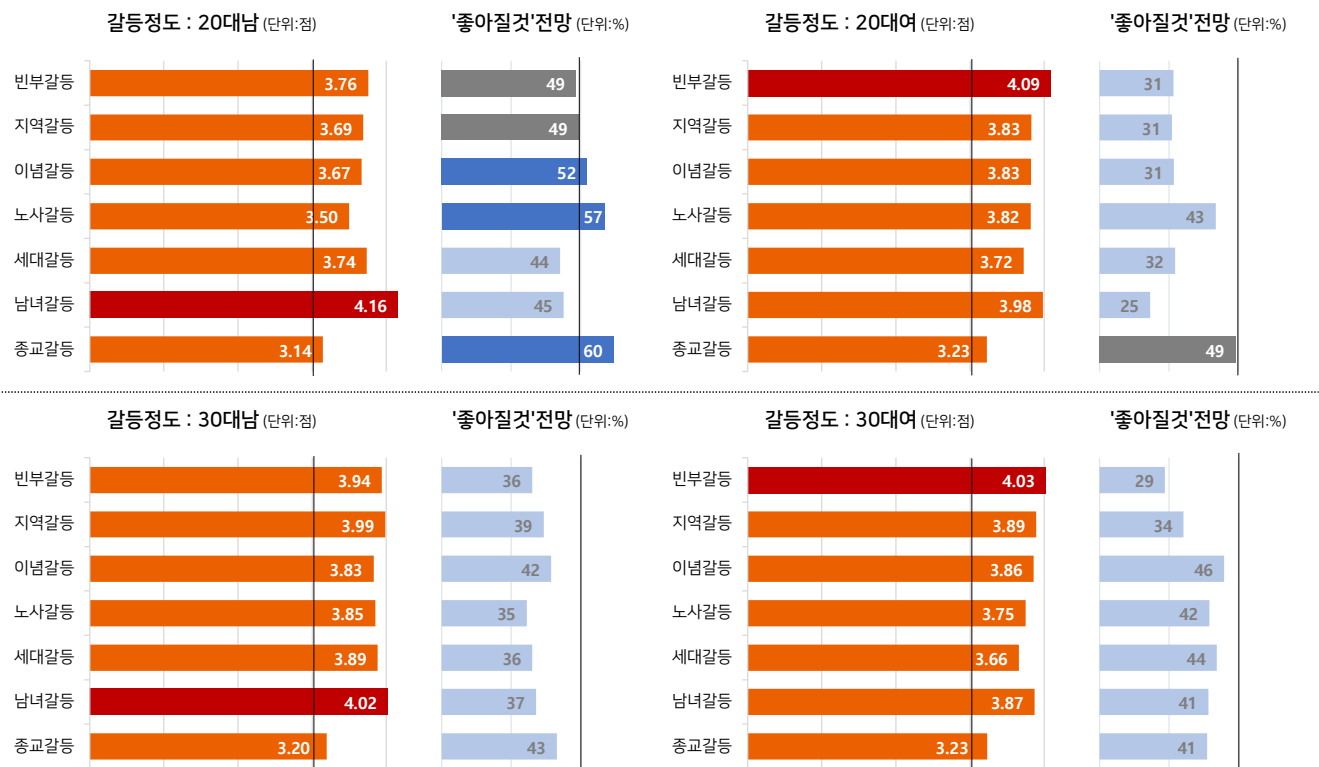


Kstat Point

- ☑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꼽은 갈등은 ‘빈부갈등’으로, 이는 소득양극화에 따른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 이미 한국사회는 ‘계층상승 사다리’가 부러졌으며, 부모의 종착역이 자식의 출발역이 되는 ‘부와 빈곤의 대물림’ 양상이 뚜렷한 사회로 평가받고 있음
 - :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못할 경우 빈부갈등이 폭발적으로 분출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임
- ☑ 향후 전망에서도 ‘빈부갈등’이 가장 비관적인 수치를 보여, 국민적 우려가 집중되고 있음
 - :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지금, 국민통합의 방향성 설정에 있어 이러한 국민여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 이념갈등, 세대갈등, 남녀갈등과 같이 정치권이 주목하는 갈등보다, 국민적 심각성과 우려가 높은 빈부갈등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임

□ 2030 남자는 '남녀갈등, 여자는 '빈부갈등' 우려

- 우리사회 갈등정도와 전망을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먼저 2030 세대는 남녀 간 생각이 다름
- 2030 남자는 '남녀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여자는 '빈부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함
 - 20대 남자 '남녀갈등' 심각성 4.16점 / 30대 남자, '남녀갈등' 심각성 4.02점
 - 20대 여자 '빈부갈등' 심각성 4.09점 / 30대 여자, '빈부갈등' 심각성 4.03점
- 향후 전망에서는 20대 남성만 긍정적이고, 30대 남자와 2030 여자는 모두 부정적임
 - 20대 남성은 '종교갈등', '노사갈등', '이념갈등'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빈부갈등'과 '지역갈등'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전망함
 - 이에 비해 30대 남자와 2030 여자는 모든 갈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함(20대 여성, '종교갈등'만 예외적으로 긍정적 전망치가 높은 수준)
 - 아래 좌측그림의 검은색 세로 선은 '중간'에 해당하는 3점 기준선이고, 우측그림의 검은색 세로 선은 50% 기준선임
 - 또한 짙은 붉은색 막대는 4점 이상이며, 짙은 푸른색 막대는 50% 이상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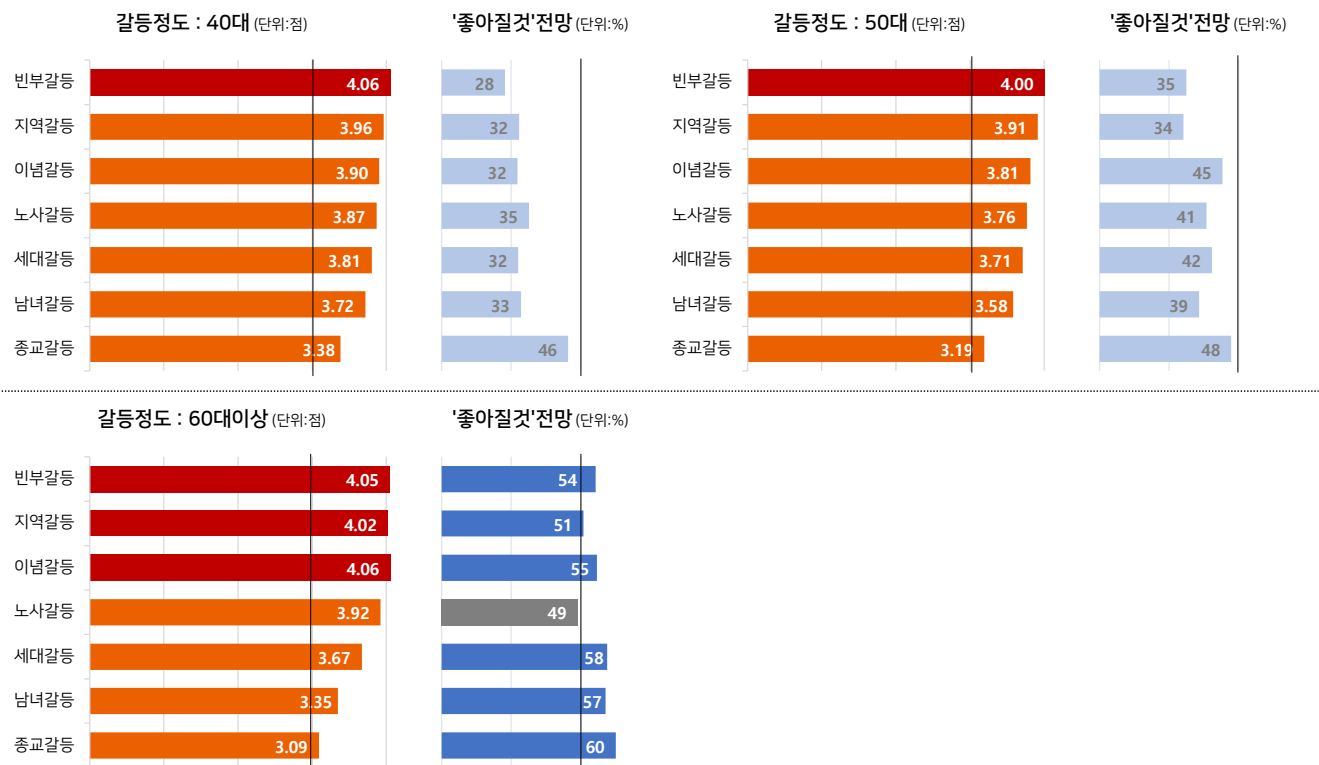


Kstat Point

- ☑ 그간의 각종 정치·사회조사에서 나타나듯 2030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남녀 간의 인식 차이인데, 이번 조사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갈등을 두고 남녀 간의 인식차이가 드러남
: 남성은 '남녀갈등'을 꼽고, 여성은 '빈부갈등'을 꼽음
- ☑ 주의할 점은 2030 여성 역시 '빈부갈등'을 더 심각하게 생각할 뿐 '남녀갈등' 역시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점임
- ☑ 2030 세대에서는 앞으로도 '남녀갈등' 문제가 지속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됨

□ 4060세대 '빈부갈등' 우려 / 60대, 향후 전망 긍정적

- 4060세대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갈등은 '빈부갈등'으로 나타남
 - 40대 4.06점 / 50대 4.00점 / 60대이상 4.05점
- 60대이상은 '이념갈등'(4.06점)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지역갈등'(4.02점)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함
- 향후 전망에서 4050세대는 부정적인데 비해 60대 이상은 모든 갈등이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함
 - 40대는 거의 모든 갈등에 걸쳐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40%대를 넘지 못하고 있음(종교갈등만 46%)
 - 50대는 40대보다 긍정적으로 전망하지만 여전히 긍정 전망이 50%를 넘지 못함
 - 60대 이상은 거의 모든 갈등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함(노사갈등만 49%)
- 아래 좌측그림의 검은색 세로 선은 '중간'에 해당하는 3점 기준선이고, 우측그림의 검은색 세로 선은 50% 기준선임
- 또한 짙은 붉은색 막대는 4점 이상이며, 짙은 푸른색 막대는 50% 이상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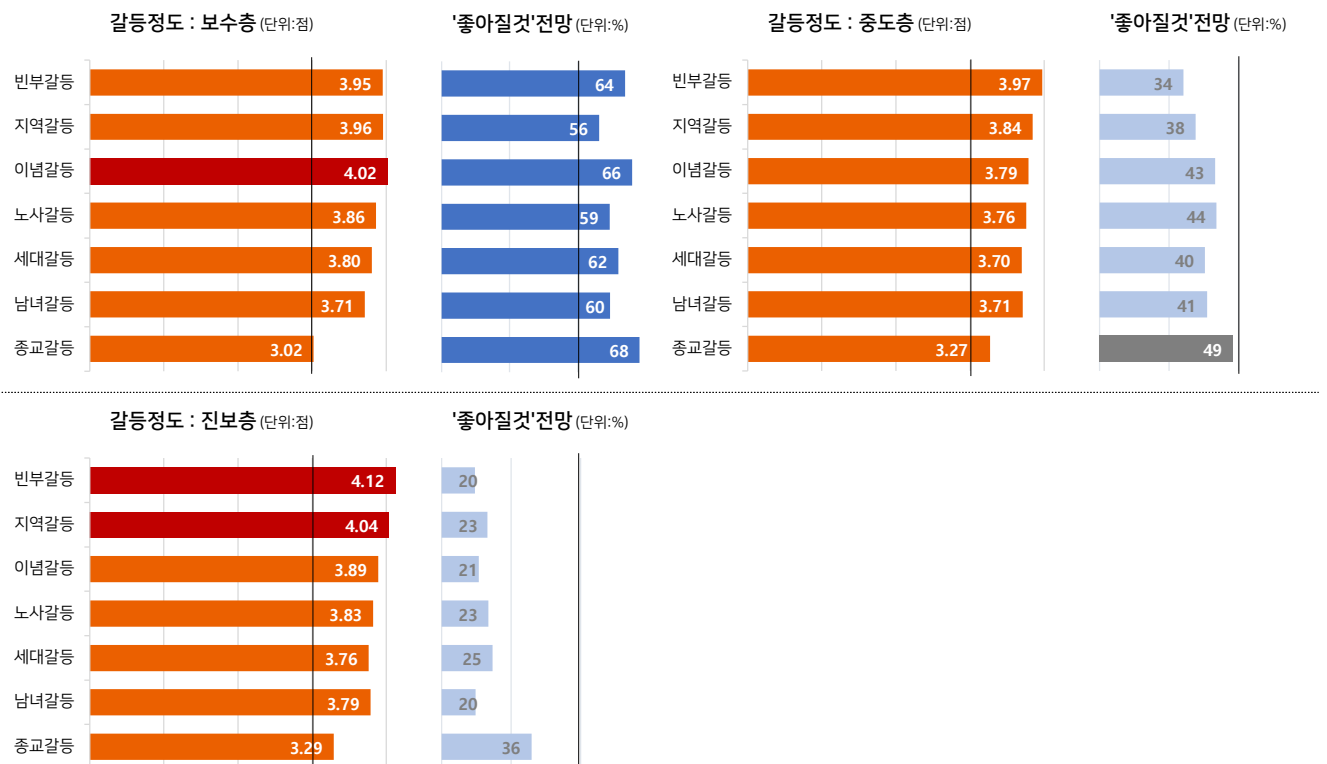


Kstat Point

- ☑ 4060세대에서도 '빈부갈등'이 심각한 갈등으로 꼽혀,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대한 갈등인 것으로 보임
- ☑ 향후 전망에 있어 4060세대가 갈리는데, 4050세대는 부정적이고 60대 이상은 긍정적임
 - : 이러한 태도의 차이는 대선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 차이 때문으로 보임
 - : 4050세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낮은 기대감으로 인해 사회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60대 이상은 높은 기대감을 바탕으로 사회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임

□ 갈등 전망, 보수층은 긍정적이고 진보층은 부정적

- 갈등 정도를 이념별로 살펴보면 보수층은 ‘이념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4.02점), 진보층은 ‘빈부갈등’(4.12점)과 ‘지역갈등’(4.04점)을 심각하게 생각함
 - 중도층은 상대적으로 모든 갈등에 걸쳐 심각성 정도가 낮음
- 이념별 태도가 가장 갈리는 지점은 향후 갈등 전망으로, 보수층은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데 비해 진보층은 부정적으로 전망함
 - 보수층은 모든 갈등 영역에 대해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함
 - 중도층은 보수층과 달리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낮아 부정적 태도를 보임
 - 진보층은 대부분의 갈등에 대해 20%대의 낮은 긍정 전망 수치를 기록해(종교갈등만 36%) 매우 부정적으로 전망함
 - 아래 좌측그림의 검은색 세로 선은 ‘중간’에 해당하는 3점 기준선이고, 우측그림의 검은색 세로 선은 50% 기준선임
 - 또한 짙은 붉은색 막대는 4점 이상이며, 짙은 푸른색 막대는 50% 이상을 의미함



Kstat Point

- ☑ 보수층과 진보층의 태도 차이는 앞서 4060세대에서의 태도 차이와 동일함
 - : 보수층은 60대 이상 연령층이 주축이고, 진보층은 4050세대가 주축이기 때문임
- ☑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음
- ☑ 여기에 보수층의 기대와 대비되는 진보층의 부정적 시각이 매우 강해, 출범 초기 행보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임
 - : 새 정부의 국정 비전 및 국정과제 선정,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신임내각 구성에 대한 국민여론이 어떻게 형성될지 귀추가 주목됨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48호, 49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48호와 49호는

각각 2022년 4월 14일(목요일), 4월 28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